

사회

자녀의 담임·교장·교감 등에 대해 잘 아시나요?

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황당

광주 초·중·고 301개교 7월 말까지 실시 예정

학부모 아닌 학생들 인기도 평가 객관성 상실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오모(여·44·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자녀의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교원평가제에 참가했다. 아이의 담임교사 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각 교과 교사들의 평가까지 곁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오씨는 결국 아들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하듯 평가서를 작성했다. 오씨는 "아들이 새 담임을 맞이한 지가 불과 4개월여에 불과한데, 무엇을 보고 평가하라는 말인지 답답했다"며 "결국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아닌 아들의 만족도 조사가 되고 말았다"고 푸념했다. 지난 주 교원평가제에 참여한 중학교 학부모 김모(여·41)씨도 "아들에게 교사들의 성향을 물었더니, 특정

교사를 지칭하며 낮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이유를 물으니 공부하는 걸 가르치는데, 숙제도 많이 내주고 두말이나 복장 등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 싫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려는 의식있는 교사는 낮은 점수를, 수업의 질 등을 떠나 인기있는 교사는 높은 점수를 받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올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실시중인 교원능력평가제(이하 교원평가)가 '학부모 아닌'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지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광주지역 초·중·고교 301개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장(감), 교과 및 보건·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날 현재 98개교가 평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학교도 이달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 방식 등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부모의 응답 결과에 따라 특정교사에게 인센티브 또는 자질향상을 위한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중요한 평가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탓에 교사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는 자녀에게 교원평가를 맡기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에 당혹해 하고 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은 최근 열린 학부모와의 교원평가 간담회에서 "올해가 전면 시행 첫해여서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교원 평가가 연 1회씩 이뤄지는 탓에 결국 1학기 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몇달만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 객관성과 공정성 모두 결여될 수밖에 없다. 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의료원 장비 열악

총족도 목표 55%·순천 65%...전국 최저

전남지역 지방의료원의 장비가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을 비롯한 농촌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환자가 발생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지방의료원의 장비는 오히려 뒤떨어지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는 근접 지역에 첨단기기를 보유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전남 등의 지역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한나라당 이예주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지방에 위치한 의료원보다 장비 총족도가 더 훨씬 높았다. 이 의원이 주요 장비 목록을 토대로 지방의료원별 장비보유율을 산출한 결과, 전남지역의 목표의 장비총족도가 5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순천의료원은 65%, 강진의료원도 7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대도시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장비총족도가 모두 85% 이상인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의 열악한 장비 상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 의원 측은 또 "보건복지부는 장비총족도가 90% 이상이면 '매우 총족', 80% 이상을 '총족', 70% 이상을 '부족', 70% 미만을 '매우 부족'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 중 장비총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의료원으로 95%에 달했으며 전북의 군산의료원(90%)과 남원의료원(85%)의 장비총족도도 매우 우수한 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높은 대도시보다 접근성이 낮은 지방에 위치해 있는 지방의료원의 장비총족도가 낮은 것은 정부의 의료자원 공급방식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배분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여성 흡피에 음란 메시지 서부경찰, 2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인터넷 미니홈페이지 쪽지 기능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강모(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달 13일 밤 11시10분 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음란성 쪽지를 김모(여·23)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계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전자발찌법' 오늘 시행

법무부는 15일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과 부작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연홍순

"대낮에..." 고교생 혼계하다 주먹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입맞춤하는 남녀 고등학생을 혼계하려다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장모(29)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친구에게 입맞춤을 하던 광주 모 고교 1년 고모(15)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에서 장씨는 "대낮부터 어린 친구들이 과도하게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고 타이르다가 주먹까지 휘두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교장 공모 순위 반복 논란

전남지역 상당수 1·2차 심사결과 뒤바뀌어

광주·전남지역 학교 40여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1, 2차 심사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잦아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자리가 빈 82곳중 절반 가량인 광주 12곳, 전남 30곳 등 모두 42개 학교에서 지난 달 교장 공모에 나섰다. 공모에는 광주가 45명, 전남이 115명이 응모해 평균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학교경영 계획서 심사과 면접 등을 거쳐 3배수를 1차로 선발했다. 이어 초·중은 지역 교육청에서, 고교는 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50% 이상 참여한 교장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2배수로 좁히면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과부에 임명 제청한다. 교육감은 1, 2순위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 순위를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모 초교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등은 "1차 심사 결과가 뒤집어졌다"며 2차 심사 결과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도 초등 8곳 중 1곳이 1, 2차 순위가 뒤바뀌어 교과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심사서에서 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 능력여부를 떠난 지역출신 선호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2차 심사에선 1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해 다양한 검증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급식 골라보세요" 15일 광주시 남구 효덕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영양체험행사서 학생들이 식습관과 영양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식단을 고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0대 남 PC게임방서 손님에 흥기 휘둘러

15일 오전 6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PC게임방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손님 이모(45)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체를 입힌 뒤 달아났다. 범인은 PC게임방에서 자신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던 이씨를 뒤쫓아가 흥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광주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씨가 깨어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홍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 음란전단 강력 단속

불법전단 살포 단속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당국의 대처도 미흡적이라는 지적(본보 7월 15일자 6면)에 광주경찰이 음란성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무지구·용봉지구·침단지구 등 주요 도심에서 불법 음란성 전단을 제작·배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각 경찰서 형사·여성청소년계·경찰관 기동대 등 11개팀 134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전담팀'을 꾸린 뒤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불법 음란성 전단지 배포자는 물론 의뢰업자·인쇄업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성매매알선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등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도심 주요 길목에 검문 경찰관들을 배치,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 음란성 전단을 배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이홍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 전완준 화순군수 추가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5일 지역 변영회장 취임식 지원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화순군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6월 13일 오후 6시께 화순군 화순읍 관사에서 정모씨에게 화순군 변영회 협의회장 취임식 기념수 및 현수막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혐의다. 전 군수는 선거 경쟁자였던 안호경 전 군수가 변영회장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씨를 시켜 음·면 변영회장들로 구성된 변영회 협의회를 만들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5월 화순지역 변영회장 6명에게 모두 700만원을 주고, 유권자에게 식사와 쇠고기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amsu Jangwan Hotel' (금수장관호텔) in Gwangju.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otel room and text in Korean. The main headline says '내집같은 편안함!' (Comfort like home!). Below it, it says '광주에는 금수장관호텔이 있습니다.' (In Gwangju, there is Gamsu Jangwan Hotel). The ad lists various amenities and services offered by the hotel, including a swimming pool, spa, and conference facilities. The logo for Gamsu Jangwan Hotel is visible in the bottom left corner.